

2021. 2. 2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2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 수 덕	2133-6405
소통기획팀장	권 소 현	2133-6407
소통전략팀장	유 병 천	2133-6450
주 무 관	김 현 민	2133-6409
주 무 관	김 건 호	2133-6451
주 무 관	정 기 열	2133-645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제102주년 3.1절 맞아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새단장

- 1,700여 건 넘게 지속된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코로나19 극복 의지 고취
- 시 소통매체를 통해 3.1절 기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선보여

- 서울시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서울광장 꿈새김판을 2월 25일(목) 새롭게 단장한다.
- 서울에서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시위로 시작된 3.1운동은 3월 1일 하루로 끝나지 않고 1919년에만 1,700여 건이 넘는 만세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 만세 운동 외에도 독립선언서 및 격문 배포, 동맹 휴학, 조선인 상인 철시, 파업, 식민통치기구 습격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발생하여 이후 임시정부 수립과 여러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으로 이어져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이번 꿈새김판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의지를 다양한 운동 양상이 기록된 여러 장의 달력으로 형상화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현재의 난관을 끝까지 함께 이겨내자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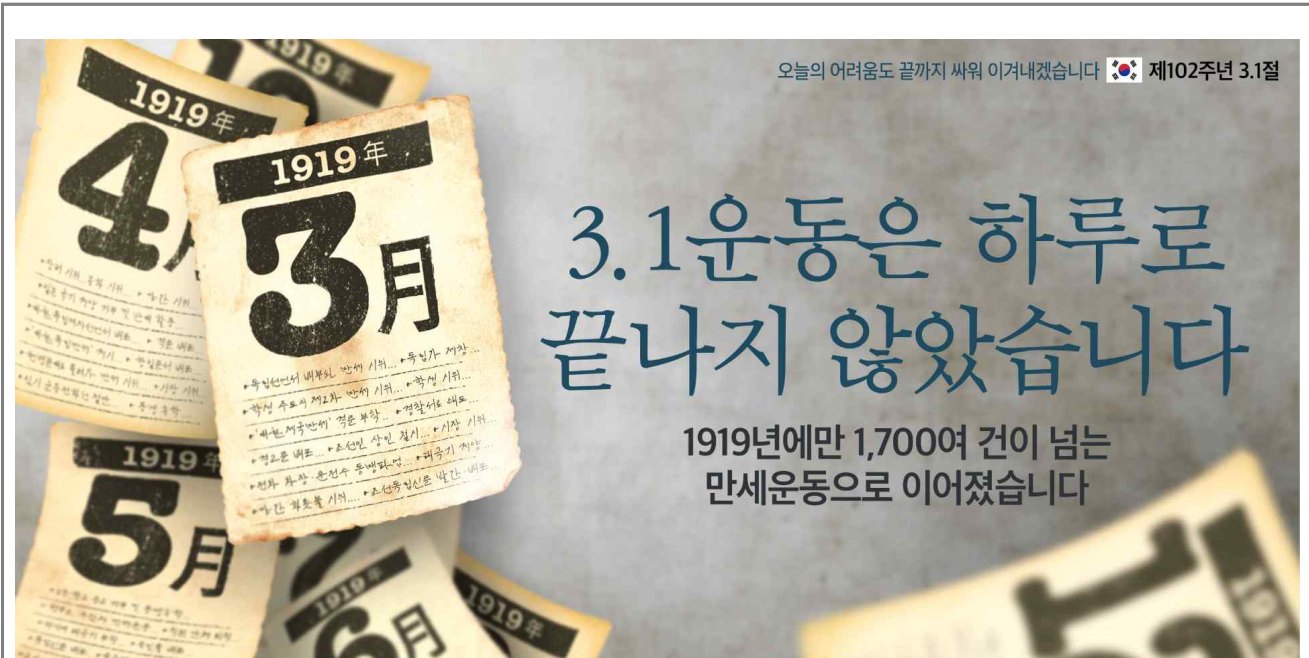
- 이번 꿈새김판은 서울시 대표 SNS(Facebook,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에 게재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 서울시 대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에서는 서울시민기자의 3.1절 관련 서울 명소(남산 예장자락·딜쿠샤 등)에 대한 역사문화탐방기를 발행한다. 이외에도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및 서울시 대표 네이버블로그에서도 3.1절 관련 서울의 명소를 소개하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 또한 3월 1일(월) 시민청TV(유튜브 및 네이버TV)에서는 ‘3.1절은 슬픈 날?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3.1운동이 발발한 계기, 확산 과정 및 그 결과와 국내·외 영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최태성 강사와 함께 알아보고, 민주공화국 체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된 3.1절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에 그치지 않고 1,700여 건 이상 지속된 데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102년 전 모두가 함께 하나의 염원으로 3.1운동을 끊임없이 이어 갔던 것처럼 온 시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서울수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3.1절 기념 시안 및 설치 시뮬레이션

<붙임. 3.1절 기념 시안 및 설치 시뮬레이션>



<3.1절 기념 게시 시안 >



<설치 시뮬레이션>